

【서평】

박홍규 철학이 남긴 헬라스 사유의 유산

김재홍*

플라톤의 정신에 비취보면 많은 ‘말’을 남기는 것은 큰 악일 수 있다. 진리는 우리의 말과 글에 있기보다는 형이상학적 세계라는 추상적 공간상에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자기모순에 빠져들고 말았다. 자신이 거부하려는 언어의 세계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으니 말이다. 이것도 플라톤의 숙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 존재의 세계 속에 들어 있는 그 자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려다 보니, 다시 우리의 사유의 모상인 언어를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까. ‘큰 책은 큰 악mega biblion, mega kakon’일 수 있으나, 많은 말은 큰 악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인 한 사유를 말로 형언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95년에 『박홍규 전집』 1, 2에 이어 올해 『박홍규 전집』 3, 4(이하 『전집』 1, 2, 3, 4로 표기)가 출간되었다. 전체 다섯 권으로 예정되었던 전집 가운데 80%가 이루어진 셈이다. 마지막 한 권은 『창조적 진화 강독 1, 2』로 베르그송 철학을 중심으로 한 ‘형이상학 강의’에 관련된 내용을 모은 저작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유고집으로 출간된 전집은 생전에 박홍규 자신이 직접 쓴 저술과 논문을 담고 있는 『전집 1』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유고집』이라는 이름에 제대로 맞아떨어진다. 물론 유고(遺稿)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죽은 사람이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생전에 써서 남긴 원고'라고 한다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쓴 원고이기보다는 박홍규의 강의록과 제자들의 질의응답을 담은 대화형식을 빌은 담화록이기 때문에 더욱 더 박홍규의 생생한 철학적 사유를 드러낼 수 있다.

대화의 형식을 빌은 서양고전의 대표적인 것은 물론 플라톤의 저서이다. 헬레니즘 시기의 에픽테토스의 저서도 대화록이었고, 그 저작을 기록한 사람은 그에게서 강의를 들은 제자인 아리아누스였다. 그 후에도 이런 대화적 전통이 있었긴 해도 철학적 담화를 본격적으로 철학 작업으로 삼는 경우는 드물었다. 플라톤의 저작에서 볼 수 있듯이 대화형식의 글은 철학적으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논의 주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생동적이고 역동적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제의 변전이 사유의 흐름에 그대로 내맡겨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 한참 다른 주제로 흘러가다가도 또 다른 물줄기를 만나면 다시 새로운 주제로 포섭되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사유의 흐름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은 고스란히 단점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 그 대화의 주인공이나, 즉 누가 그 대화의 물줄기를 틀어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대화의 흐름은 유려할 수도 있고, 바람이 일지 않는 데도 흐트러질 수도 있다.

대화의 진행은 항해하는 것과 같다. 선장이 방향키를 놓치게 되면, 철학이란 주제를 실은 배는 그만 방향을 잃고 난파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그 급한 물살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키를 잡은 선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선장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노련하고 오랜 고통의 숙련이 필요하다.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손님들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선장의 적절한 키질에 따라 제대로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선원들의 몫이고, 손님들은 항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몫이다. 선원들의 능력이 탁월해야 노련한 선장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의 지시와 암묵적 약속에 따라 거친 물살을 헤치고 제대로 배를 목적지에

안착시킬 수 있다.

박홍규라는 함선에 승선해 철학이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은 선원들의 노련미는 <전집>의 전체적인 방향을 잘 잡아 주고 있다. 대화로서 철학함은 항해하는 것과 같다. 종국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앞서 중간 기착지를 거치면서 대화의 전개는 무르익기 마련이다. 그 대화의 숙성을 도와주는 선원들이 면면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선원들의 철학적 기질과 다양한 관심사가 나타나고, 상호토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냉랭한 지적인 전선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노련한 선장의 일사불란한 지휘는 분분한 논의를 한데 모은다. 그러는 과정 자체가 옆에서 들여다보는 관객인 손님들을 긴장시켰다가도 긴 안도의 숨을 내쉬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철학적 항해의 참맛이 박홍규 전집 대화편을 읽는 묘미이다. 손님으로 하여금 높은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을 풀어주면서 목적지로 나아가는 선장과 선원들의 철학적 능력이야말로 독자인 손님이 만끽할 수 있는 철학적 즐거움이다.

『박홍규 전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철학적 즐거움은 대화의 형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전집의 형식은 혹자가 보기엔 촌스러울 정도로 투박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형식이 내용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형식을 포장해주어야 한다. 더구나 『전집』의 실질적 내용이 ‘형식적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형이상학’을 강의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에 출간된 『전집 3』은 11개의 강의를 담고 있다. 그 하나 하나는 독립적이면서도 전반적으로는 희랍철학이라는 기본적 틀에다가 서양 정신사의 뿌리와 그 깊은 내용을 밝혀주는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몇 개의 주제를 열거해 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시아, 플라톤과 전쟁, 플라톤과 허무주의의 극복,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피시스의 문제, 희랍철학의 이면 등은 서양정신사의 뿌리인 희랍적 사유의 유산을 근원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플라톤과 전쟁’이란 강의는

플라톤 철학의 근본적 성격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다.

『전집 3』이 희랍철학 정신에 대한 기원을 탐구한 일반적 기술이라면 『전집 4』는 플라톤 후기철학에 대한 본격적 강의인 셈이다. 플라톤 후기 저작인 『정치학』, 『티마이오스』, 『파르메니데스』, 『필레보스』 편을 강독한 후, 각 대화편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한 강의들을 편집한 것들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전집 3』보다 더 전문적이라서 손님으로서는 그 글을 읽어내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다. 이 짧은 서평에서 박홍규의 철학적 사유를 다 설명할 길은 없다. 그것을 깨우치는 길은 직접 읽어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이다. 그래도 명색이 서평이니, 부족한 서평자의 안목에서는 박홍규의 철학함의 방법에 한정해 간단히 얘기해볼까 한다.

박홍규 철학의 실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부피와 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내용 또한 만만하지 않은 이 『전집』에서 박홍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를 확인하는 작업은 박홍규라는 배에 승선한 선원들의 일이고, 그 배와 함께 항해의 기쁨을 누리는 손님들의 작업일 것이다. 손님으로서 서평자가 읽어낸 박홍규 철학의 한 단면은 그의 철학 방법론이었다. 물론 해석자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박홍규 철학 방법’은 철학의 정신을 규정하는 대목이다. 이미 최정식은 ‘『박홍규 전집 1, 2』에 대한 서평’에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분석의 능력 자체이지 분석된 내용이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생명체에게는 굳어있는 형태가 아니라 매순간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 자체의 유연성이 문제이며, 철학도 크게 보면 자기 조절 능력의 하나이므로 그 역시 경직성이나 습관성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평한 바 있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박홍규의 철학적 방법을 경직된 “지적 작업”이 아닌, 주입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한 그의 철학 방법론이라고

이름 붙여도 큰 잘못은 없어 보인다. 『전집 1』(‘고별강연’)과 『전집 3』(‘아리스토텔레스의 우시아’, 15쪽)에 나타난 박규홍에게서의 철학함의 정신은, ‘데이터에 입각하지 않은 학문은 없고 철학도 데이터에 기반을 둔 철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정신의 출발을 주어진 것인 ‘데이터’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박규홍에 따르면, “철학이란 모든 이론에 앞서서 프라그마의 데이터에서 출발하여, 그 데이터를 학문적으로, 어떤 철학 체계로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반성해 보는 학문이다. 모든 개별 과학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격quality(즉 특성) 때문에 여러 학문으로 나누어진 것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요컨대 탈레스가 철학자라고 기록될 수 있는 근거는 탈레스에게 주어진 사물들, 즉 주어진 데이터의 총체 속에서 관계가 무엇인가를 반성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규홍의 철학관을 요점적으로 정리하면, 철학이란 주어진 것을 데이터로 (1) 받아들여, 그것을 (2) 정리하고, (3) 반성하고, 그로부터 학문 탐구가 목표로 하는 (4) 이론을 획득하는 것이다. 여기서 1단계에서 4단계의 과정까지를 ‘추상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 추상화 과정이 끝난 단계에서 우리는 이론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런데 학문은 존재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빌리면, 우시아 즉 사물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존재 자체가 증거가 안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난점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 최후에 얻게 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 자리로 다시 돌아와 존재 일반을 그것에 적용했을 경우에 학문이 성립하게 되는 계기가 이루어진다.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 떨어져 나온 것은 ‘초월적’ 성격을 가진다. 이 필요조건을 가진 것만이 데이터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존재가 그 존재로서 규정되게 된다. 어쨌거나 데이터에 토대를 두지 않는 존재의 규정은 무의미한 것이고 학문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4단계를 철학의 탐구 방법에 적용하면 하나의 실제적 탐구 방법이 될 수 있다. 학문은 증명(아포데익시스)을 목표로 하는데, 존재 자체는 증명될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증명은 일종의 존재들의 관계맺음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니 증명 이전에 존재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일구어내는 절차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 즉, 데이터를 받아들여, 정리하고, 반성해서, 이론을 획득한다. 여기서 정리한다는 것은 ‘쟌다’는 말이고, 만일 “재지 않는다면 모든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고, 주관적임을 면할 수 없다. 사물을 정량적으로 재야된다. 쟌다는 것은 또한 그것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어진 것과 재어진 것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고 그것이 되풀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법칙이라 한다.” 우리에게 기하학적 예로서 주어진 데이터는 연장성 속에 들어 있고, 물리적 세계 속에 들어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실지로 쟌 수도 있고, 경험을 통하여 되풀이되는 것은 수학적으로 추상적 공간에서 법칙화해서 쟌 수도 있다. 물리적 세계에서 재는 것과, 기하학적 차원에서 재는 것, 그리고 형상으로서 재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데이터가 성립하는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법칙으로서의 원인과 그것을 설명해 주는 원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 대상의 차이는 존재의 방식에서 드러나지만, 대상의 존재 방식을 묻는 것, 즉 존재론은 항상 그 대상의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하는 원인론 aetiology 일 수밖에 없다. 데이터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묻는 것, 왜 차이를 가져오느냐를 묻는 것이 철학함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사물들의 ‘질서’를 정리하는 일이 뒤따른다. “존재론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의 각 사물의 기본적인 자리매김 classification이 거기서 가능하고, 우주 내부에 있어서의 각각 사물의 위치를 정의 definition의 차원에서 정하려는 것”이다. 정의 차원에서 각각의 개별과학이 완성될 때, 비로소 존재론은 완성된다. 그리스의 경우에 개별과학의 성립 이전에 일반론인 존재론이 선행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 된다. 결국 박홍규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격 때문에 여러 학문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고, 각 개별과학마다 주어지는 데이터에 입각해야 주관적 견해나 사상의 차원을 넘어 학문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언어(논리적 개념)를 통한 철학적 탐구의 수행’이라고 한다면, ‘철학은 데이터 그 자체가 어떻게 성립하느냐’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본 박홍규의 철학적 방법은 그 어떤 언어적, 역사적, 사회적 전제 없이 주어진 실증적이고, 구체적 데이터로부터 철학적 방법이 시작된다. 양자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주어진 것(데이터)을 무엇으로 또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즉 데이터의 성격에서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 데이터는 인간의 언어와 깊은 연관 관계를 맺는다.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아포리아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 아포리아는 인간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에서 형성된 인간의 믿음과 연관을 맺고 있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대개 엔독사(*endoxa*)라고 부른다.

박홍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의 데이터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사람이지, 늙은 사람, 누구누구의 아들, 어디서 온 사람 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그냥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늙은 사람이니, 젊은 사람이니, 어디서 온 사람이니, 누구 아들이니 할 적에, 그 젊다느니, 누구 아들이니 하는 것은 전부 사람에 대해 우연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학문에서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데이터라는 것은 벌써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system)에 의해서 추상화된 데이터입니다. ... 그러나 플라톤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고유 명사의 입장에서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철학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개별 과학적인 데이터와는 달리 모든 데이터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 우리의 추상적인 사고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이해합니다. 그러니

까 실제 여기 있는 개별적인 누구인데, 몇 살 먹은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돈이 있고,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으로 나오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냥 사람, 그냥 집, 그냥 개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특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입장에서 볼 때, 우연적인 속성은 학문에서는 별 가치가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 입장에 대한 박홍규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은 우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것이지만, 대뜸 본질적인 것 혹은 보편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나아가 그것들과 본질을 구별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연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가리는 방법과 기준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진리와 지식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경우에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연적인 것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 선원의 입장이 되지 못한 감냥 부족한 손님으로서 서평자의 피상적 독해는 끝났다. ‘우리는 박홍규 선생의 저술과 함께 우리의 사상과 철학도 수용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조회와 탐구의 대상이 될 원전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전집 간행자들의 믿음이 실천되기를 바란다. 박홍규라는 사상을 실은 철학적 항해의 배가 좀 더 성숙한 항해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 배를 이어받을 능력있는 키잡이가 나와야 할 것이다. 새로운 키잡이가 누가 되었건 어느 정도는 그의 사상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가시적으로는 드러났다고 믿는다. 고급독자로서의 손님이 되었건, 박홍규와 함께 해왔던 선원이 되었건 상관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박홍규라는 거인이 남긴 희랍정신과 사상을 이 땅에 전파하고 그 사상을 밑받침 삼아 우리 철학계의 앞날을 밝히는 독자적 사상을 찾아내고 넓혀가는 일이라.